

3/26/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 (선민 회복)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1 장 1-17 절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

(스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 1: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절관주** 대하 36:16, 학 1:1

(스 1: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 1: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절관주** 시 78:8, 시 106:6

(스 1:5)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스 1:6)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절관주** 애 2:17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

(스 1: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니라

(스 1: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절관주** 슥 6:2, 계 6:4

(스 1: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스 1: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절관주** 슥 6:5, 히 1:14

- (속 1: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절관주** 욥 1:7, 욥 2:2
- (속 1:12)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절관주** 렘 25:11, 단 9:2
- (속 1: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절관주** 렘 29:10
- (속 1: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절관주** 욥 2:18, 속 8:2
- (속 1:15)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절관주** 사 47:6, 암 1:11
- (속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관주** 사 12:1, 사 54:8, 속 2:2
- (속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절관주** 사 44:26

본서는 구약 성경 12 권의 소선지서 중 한 권입니다.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차 있어서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만큼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자 스가라는 잇도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잇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잇도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 1 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스가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 태어났습니다.

본서는 BC 520 - BC 470 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 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 년에 걸쳐 3 차례로 나누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BC 536 년 1 차로 5 만여명의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인솔 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지 (BC 605 년) 정확히 70 년 만입니다.

이어 BC 458 년 에스라의 인솔 하에 2 차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BC 444 느헤미야 주도 하에 3 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1 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 이듬해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고 그후 16 년간이나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학개 선지자는 바사 제 4 대 왕 다리오 2 년 6 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할 것을 독려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로부터 2 달 뒤인 다리오 왕 2 년 8 월 성전 재건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메세지, 예언을 선포합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8 장은 BC 520-518 년에 주어진 계시로 환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재개된 직후 그들을 독려했기 위해 주어진 말씀과 환상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반부 9-14 장은 BC 480-470 년에 묵시적이고도 종말적인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될 메시아 왕국과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 및 그리스도의 수난 받으심과 영화롭게 되심에 관한 심층적인 예언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 2 년 8 월 (BC 520 년 10 월-11 월)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슥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록 연대를 다리오 통치 년도로 기록한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주였던 바사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통치 년도로 기록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포문을 엽니다.

(슥 1: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 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곧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 따른 보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슥 1: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패역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슥 1: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여기서 옛적 선지자들이라함은 이사야 하박국 에레미야 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침략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으나 패역한 조상들은 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비록 죽고 없어졌을지라도 당신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슥 1:5)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슥 1:6)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BC 519년 2월 15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처음 임한지 3개월이 지난 때이자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된지 5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인해 특별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슥 1: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에 대해 먼저 본 환상을 묘사한 후 천사에게 환상의 의미를 묻고 천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전개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8가지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세 말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주어질 모든 환상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정 왕국 회복이라는 큰 뜻을 품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도하였으나 대적들의 박해로 시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곧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숙 1: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사자 곧 천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많은 천사들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십니다.

붉은 말은 '피흘림'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도금양 나무로도 불리며 잎은 항상 푸르고 꽃, 잎, 줄기에서는 좋은 향이 납니다.

이스라엘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시들어도 물에 꽃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며 불사의 표징으로 죽음과
부활의 약속으로 사용됩니다.

미래의 희망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번성하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처럼 성도는 흥흥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뒤에는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거느린 천사들입니다.

백마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숙 1: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숙 1:10)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탄 자들이 하나님이 땅 곳곳을 다니며 살피라고 보내신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피고 온 세상을 말합니다.

(숙 1: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말 탄 자들이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인근 민족들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숙 1:12)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본절은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숙 1: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숙 1: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숙 1:15)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질투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해를 가한 열국에 대해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채찍으로 쓴 것인데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만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린 중보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슥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슥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신적 자비가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BC 516 년 성전이 완성되어 봉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 당신 집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어 이스라엘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